

또 한 분이 떠났다...일본 사과와 배상 받을 날 올까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인권운동의 상징' 이금주 할머니 별세 일 정부·전범기업 상대로 손해 청구소송 일본 사법부에 제기 광주유족회 30년 이끌어 광주 천인소송 등 대일 소송 7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영원한 대모(代母)이자 인권운동의 상징인 이금주 할머니(사진)가 끝내 소원이었던 일본의 사과 한번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한평생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 촉구, 그리고 강제동원 피해자의 인권운동에 헌신해 온 이금주 할머니가 지난 12일 밤 11시 50분께 별세했다. 향년 102세.
이금주 할머니는 일제 강점기인 지난 1943년, 일제에 의해 남편을 잃었다. 이 할머니의 남편 김도민 씨는 결혼 2년 만인 1942년 일본 해군에 강제 징집

돼 1943년 태평양 전쟁 중 사망했다.
이 할머니는 남편을 잃은 슬픔을 가지고 살던 지난 1988년, 6월 항쟁이후 결성된 태평양전쟁 희생자 전국유족회 발족과 함께 주변의 권유를 받아 예순 아홉의 나이에 광주유족회장을 맡았다.
이 할머니가 회장을 맡게 된 태평양전쟁희생자 광주유족회는 1988년 당시 전국유족회의 한 지역 조직으로 시작했지만,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과 관련한 전국 유족회 내부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독립 단체로 활동해 왔다.



이 할머니는 1992년 일명 '천인소송'이라고 불리는, 일본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을 시작으로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일본 외무성 자료 정보공개 등 7건의 소송을 주도했으며, 국내에서도

2건의 소송을 진행했다.
일본에서의 천인소송 이외에 본인이 소송당사자가 아니었음에도 태평양전쟁희생자 광주유족회 명의로 여러 소송을 주도했다.
이 할머니는 소송을 위해 노령의 몸을 이끌고 80여 차례 한국과 일본을 오가는 등 30여년 간 유족회를 이끌었다.
비록 결과는 번번이 패소였고, 일본 법원에서 각각당한 것만 17차례에 달했으며 지난 2008년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했지만, 할머니와 피해자들의 끈질긴 투쟁은 지난 2004년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이끌어 냈다.
또 지난 2018년 대법원이 양금액 할머니 등 징용 피해자 5명이 미쓰비시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주변에서는 이 판결을 두고 이 할머니의 30년간 투쟁

이 주춧돌이 됐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이 할머니는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19년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했다.
13일 오후 이 할머니의 빈소가 마련된 광주시 서구 천지장례식장에서 만난 손녀 김보나씨는 "할머니는 눈물겨운 일본에서의 소송을 버텨내시면서도, 모든 국민들이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셨다. 그래서 아마 지난 2019년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본제폭 불매운동 소식을 온전한 정신에 들으셨다면 정말 기뻐하셨을 것"이라면서 "할머니 생전에 일제의 사죄와 반성의 말을 전해드리지 못한 점이 손녀로서 너무나 죄스럽다"고 말했다.
소송을 함께해왔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액 할머니는 "저번에 얼굴을 본게 마지막이 될 줄 몰랐다. 그래도 편히 떠났다. 이제는 저 세상에서 쉼 없이 날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사랑의 동전 모금함 개봉 13일 오전 광주시 북구 매곡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사랑의 동전모금함 개봉식'에서 코리야유치원 아이들이 1년간 모은 우유 팩 지름통을 개봉하고 있다. 이 행사의 모금액은 지역 복지시설에 전달된다. /최한배 기자choi@kwangju.co.kr

“폐자원 활용 그린크리스마스 트리 구경오세요”

광주 동구, 지역예술작가 참여 푸른길 일원서 전시·플리마켓

광주시 동구가 지역예술작가들과 손잡고 자원순환을 통한 지역관광활성화에 나섰다.
13일 동구에 따르면 '광주로 예술로 그린크리스마스' 도심관광 예술축제를 푸른길 산수동 문화마당 일대(동명로 69번길)에서 개최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를 맞아 일상생활 속에서 쓰고 버려진 물품을 활용, 소원

트리를 만들고 지역 예술작가들의 동구 유명관광지 드로잉 전시와 다양한 문화공연으로 꾸며진다.
11일 개최된 개막식에서는 ▲버섯트리 점등 및 소원트리 부착행사 ▲지역 예술작가 전시 ▲예술관광 지도 드로잉 ▲산터할머니 거리공연 퍼포먼스 ▲꿈을 전하는 구름물고기 ▲업사이클링, 제로웨이스트 제품 판매 및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해 방문객들에게 연말연시 즐거움과 힐링의 시간을 제공했다.
특히 일상에서 쓰고 버려진 나무 팔레트와 천조각 등의 폐자원을 활용해 만든 업사이클링 그린성

탄트리는 기후 위기 속 자원순환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동참을 유도하며 연말까지 푸른길 산수동 문화마당에서 전시되고, 지역작가 참여 작품 전시와 함께 플리마켓도 운영된다.
임택 동구청장은 "자원순환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요즘 연말을 맞아 주민들의 왕래가 많은 곳에 폐자원 활용 그린 성탄트리 제작이라는 의미 있는 작업을 진행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작가들을 응원하고 도심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하고 새로운 시도로 주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광주보훈병원에 114개 병상 재활센터 문 열어

지하 1·지상 7층...내년 본격 진료

보훈병원으로서 지역 최초로 광주보훈병원에 재활센터가 문을 연다.
국가보훈처는 14일 광주보훈병원 재활센터 완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광주 광산구 광주보훈병원 내에 들어선 재활센터는 지하 1층·지상 7층(연면적 8380㎡)에 114개 병상 규모로, 2019년 12월 착공 후 2년간의 공사를 거쳐 완공됐다.
센터는 14일 완공식 후 시범운영을 거쳐 전문의 진료와 직원 등 80여 명의 인력을 갖추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진료에 들어간다.

센터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을 위한 전문 재활 지원을 위해 국내 기술로 개발된 보행 보조로봇 등 각종 최신 장비를 도입해 재활치료를 활용할 계획이다. 광주보훈병원 재활센터는 지방 보훈병원 최초의 재활센터다.
수도권에는 서울 중앙보훈병원 재활센터가 있지만, 지방 보훈병원에는 전문적인 재활치료 시설과 인력이 충분치 않아 지방 거주 국가유공자들은 맞춤형 재활 치료에 한계가 있었다.
보훈처는 광주에 이어 내년 부산과 대전, 2023년에는 대구 보훈병원에 재활센터를 순차적으로 완공할 계획이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광주 서구, 풍수해보험사업 2년 연속 '최우수'

광주시 서구가 광주시에서 주관한 '2021년도 풍수해보험사업 평가'에서 5개 자치구 중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풍수해 보험은 주택 또는 시설물이 태풍·호우·대설 등 풍수해의 영향으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보험이다.
가입자가 일반인일 경우는 70%, 기초생활수급자 86%, 차상위계층 75%, 소상공인의 경우는 70%의 보험료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평가는 2021년 한 해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보험가입 실적과 홍보 실적 등을 점수로 환산하여 평가했다.

서구는 주택보험 3266건 가입으로 가입대상 시설물 대비 31.37%의 가입 실적을 거뒀으며, 협업 및 주민설명회 개최 104회, 방문 가입독려 4106건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전반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서구청 관계자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풍수해 보험에 가입할 경우, 최고 9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부터 실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많은 주민이 가입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 남구,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 우수

광주시 남구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 실적 평가'에서 기초자치단체 분야 종합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남구는 13일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자원을 주민들에게 적극 개방하고, 교복을 비

롯해 캠핑 용품 등 물품 공유를 통해 지역사회 혁신 및 주민생활 편의를 드높인 공로를 인정받아 전국 기초자치단체 분야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동백꽃아름다운 거문도

거문도 백도 당일 **89,000원**

☺ 여/행/문/의

|메이투어 062)385-0515
|아이티여행사 062)382-8866

• 후원: 삼도해운, 플레티빙 • 승선문의: 061)834-3434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062)362-3336**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한미쇼핑사거리)